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15년 제2차 회의록

구 분	심의위원 수
위원 정수	8
재적 위원	8
출석 위원	6

1. 회의일시 : 2015년 2월 16일(월) 14시 ~ 15시
2. 회의장소 : 서울학습관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을순, 이종현, 유학수, 장윤희, 권경희, 유희정
4. 불참위원 : 김창환, 정송영

5.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6.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7. 회의 안건 : 1.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 보류 심의
2. 기타 안건

8. 회의 진행

위원장 이을순 :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2015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안건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 보류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간사는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욱진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방안 시행 공문,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비교 자료, 학생 등록금 부담 비교표 등을 배부함]

준비한 자료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14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에서 사립일반대학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본교 2013학년도 결산서와 2014학년 추경예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 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를 위하여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제도를 변경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이버대학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간사 정옥진

본교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사립일반대학에 비하여 37.6%에 불과하면서도 장학금 등의 연구학생경비의 지출은 사립일반대학 평균이 36%인 반면 본교는 50%를 넘고 있으며, 사립일반대학 학생 1인이 전체 등록금 중에 36.3%를 장학금으로 받는 반면 본교 재학생은 1인당 약 70%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금 수입은 적고 장학금 등 지급 비율이 높아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실시할 경우 자퇴로 인한 불납 결손과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본교는 재정적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하고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을순

안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이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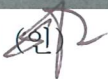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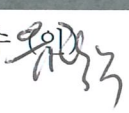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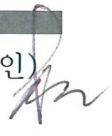
전체 등록금에서 장학금 부분을 제외한 학기당 학생 실부담액을 보면 사립일반대학이 약238만원인 반면 본교는 2013년 약42만원 2014년 추경 약39만원입니다. 사립일반대학이 238만원을 4회 분납하면 1회당 약59만원씩 납부하게 되는데 본교의 경우에는 한 학기 전체 부담액이 42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책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본교의 재정적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심의위원 유학수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이 많고 사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반대학에 비하중도 포기의 가능성이 큰 편이므로 분할 납부가 자칫 더 많은 중도포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본교의 경우 최소한의 인력으로 학교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등록금 분납금 납부확인, 납부독려 및 미납으로 인한 행정처리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로 인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 개연성도 있습니다.

심의위원 이종현 (인)  심의위원 유학수  심의위원 권경희 (인) 

위원장 이을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위원들
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권경희 시행을 보류한다면 언제까지 보류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이종현 우선 단기적으로 2년 이상 재정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
니다. 본교는 개교 이후 지금까지 등록금을 단 한 차례도 인
상한 적이 없었고, 학생1인당 교내장학금은 사이버대학 중에
서도 최상위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으나 이
를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부문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은 상
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 교육시설,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에 사용하여야
할 가용예산이 적다면 그것은 결국 학생에게도 손해라는 생
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균형적인 사용이 중요하고 그러한 의미
에서 등록금 수입의 증가 추세나 기타 지출의 변화 추세 등
재정적 상황의 개선 정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
니다.

위원장 이을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
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참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의 시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
습니다.

위원장 이을순 기타 안건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없었음)

위원장 이을순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사는 이 내용을 잘 기록하
고, 교직원 대표로는 이종현, 유학수 위원님, 학생대표로는
권경희 위원님께서 간서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5학년 제2차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회의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2월 16일

위원장 이 을 순 (서명)

심의위원 이 중 현 (서명)

심의위원 유 학 수 (서명)

심의위원 장 윤 혁 (서명)

심의위원 권 경 희 (서명)

심의위원 유 희 정 (서명)